

정지용시가 청록집에 미친 영향

- | | |
|-------------|-------------|
| 1. 머리말 | 4. 작품 내적 증거 |
| 2. 방법론 | 5. 맺는 말 |
| 3. 작품 외적 증거 | |

南 松 祐*

1. 머 리 말

정 지용은 한국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시인이다. 그가 당사로서는 새로운 면모를 갖춘 서구의 모더니즘을 이 땅에 소개 혹은 제시한 측면 뿐만 아니라, 시에 있어서의 언어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한 업적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시세계에 대한 언급이 지용이 시를 발표한 이후부터 분분했던 것이다.

임 화¹⁾로부터 시작되는 부정적인 비판도 있었지만 김 기림²⁾ 으로부터 비롯되는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도 정 지용 시연구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한 맥을 형성하였다.

* 지산간전대학 전강

1) 임 화, 蠡天下의 시단 1년, 「문학의 논리」, 1940.

그의 李秉珪, 예술과 창조, 「조선일보」, 1936. 6. 5.

李海文, 중견시인론, 「시인출추제 2집」, 1938.

尹崑南, 감각과 주지, 「시와철학」, 1948.

趙演鉉, 수공예술의 미로, 「불학과 사상」, 1949.

송 옥, 정 지용 측 모더니즘의 자기부정, 「시학평전」, 1963.

2) 김기림, 1933년 시단의 회고, 「조선일보」, 1933. 12. 8.

그의 李敦河, 바라던 지용시집, 「조선일보」, 1935. 12. 7. — 12. 10.

특히 근자에 와서 지용연구는 그 시각을 달리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법론의 제시나 접근방법은 다양하다.

그 연구의 대체적인 방향은 30년대 모더니즘 시운동의 성패를 논하는 입장³⁾과 시문학과와의 사적 의의를 밝히는 시각⁴⁾에서 혹은 카톨릭 문학의 행방을 추구하는 과정⁵⁾에서 그리고 시사적 혹은 개인사적 문맥 속에서 작품을 전체적으로 조감해 보려는 노력⁶⁾으로 집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과 함께 놓쳐서는 안되는 한 부분이 지용시의 영향,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단편적으로 있어 왔지만⁷⁾ 아직까지 체계있는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정 지용 시의 영향관계를 파악해서 그가 갖는 시사적 의미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영향관계의 검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요청된다.

하나는 받은 영향관계의 추적이요 다른 하나는 그 후진에 끼친 영향을 밝히는 작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 지용시의 영향관계 연구는 전자에 치우쳐 있었다. 즉 서구 모더니즘이 지용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바람직한 현대시사 속에서의 정지용 시의 의미추구는 후진에 미친 영향관계의 고구도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⁸⁾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정 지용의 후기시⁸⁾와 청록집에 나타난 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영향관계의 깊이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가 객관화 될 때 정 지용의 시와 청록집의 시사적 의미도 또 다른 측면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3) 송 욱, 「시학명전」, 일조각, 1963.

4) 김용직, 시문학과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969.

5)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본 카톨릭문학, 「한국문학의이론」, 1974.

6) 오탁번, 지용시의 환경, 「식민지시대의 문학연구」, 1980.

이승원, 정지용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0.

민병기, 정지용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0.

7) 영향관계의 논의 중 정 지용이 끼친 영향의 문제는 김 욱식, 이 승원, 민 병기, 문덕수의 단편적인 제시가 있을 뿐이다.

8) 여기서 후기시라 함은 정 지용의 시집중 「백록담」에 실린 시를 말한다. 정 지용의 시세계를 일반적으로 카톨릭 청년기에 발표된 종교시를 전환기로 삼아 전후기로 나누고 있다.

2. 방 법 론

일반적으로 영향이란 개개의 작품, 작품의 부분, 이미지 차용, 원천문제에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영향이란 범주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 보편성이 있는 것 즉 예술작품 안에 유기적으로 포함되며 전체를 통하여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느 작가의 작품 안에서 만약 그 작가가 그 이전의 작가의 작품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면 나타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문학상의 영향연구에 있어서 작품 그 자체가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작품과 마찬가지로 작가 역시 해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여하한 작품도 인간적 요인인 작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향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가 설사 심리학을 무시하고자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심리학적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영향관계가 작가들 사이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단정도 위험하지만 그것이 작품 사이에서만 일어난다는 주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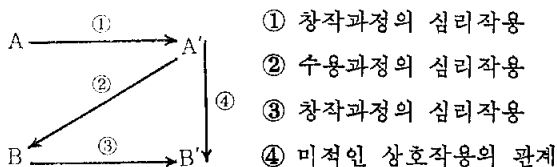
그래서 영향관계, 연구의 근거에서 실제로 취급하는 것은 두 종류의 상이한 친근성을 나타내고 있는 완전히 다른 두 제통이다. 즉 한 작가를 A라 하고 그 작품을 A', 또 다른 한 작가를 B라 하고 그 작품을 B'라 했을 때 가능한 한 체제이다.

A와 A' 사이에 개재하는 공간에는 창작과정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A'와 작가 B 사이에는 수용과정의 심리가 작용한다.

그리고 작가 B와 그 작품 B' 사이에는 창작과정의 심리—이제 수용에 의해서 보다 풍부한 것이 되어—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A'와 B'와의 사이에는 관념적인 심리적 주관주의를 초월하여 엄밀히 미적인

9) 윌리히바이스슈타인, 이 유영역, 「비교문학론」, 1981, p. 57.

상호작용의 관계가 나타난다.¹⁰⁾ 이것을 편의상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식에서 나타나듯이 영향관계의 출발은 A이다. 즉 ①→②→③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A'와 B'의 두 작품 사이에는 영향관계가 성립된다.

그런데 ①②③④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①②③과 ④로 양분할 수 있다. ④는 작품과 작품 사이의 관계이고 그외는 다같이 작품이 성립되기까지의 작품외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 지용시와 청록집과의 영향관계를 작품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도식내용을 통해서 보면 A와 B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 지용과 청록과 3인 사이에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 수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일단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영향관계를 고구함에 있어 작품외적 측면 중에서 ①과 ③의 내용은 창작과정의 심리이기 때문에 객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문학 내의적인 측면에서 영향관계의 문제를 고구하되 주로 수용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와 작품과 작품 사이에서 가능한 영향관계의 단서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즉 ②와 ④의 측면에서 영향관계의 깊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3. 작품 외적 증거

정 지용과 「청록집」을 낸 소위 청록파 세 시인과의 관계는 「문장」지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지의 성격과 당시의 문단적 분위기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0) Ibid., p. 57.

「문장」지는 김 연만이 편집겸 발행인으로 하여 1939년 2월에서 1941년 4월까지 발행하였으며 일제 말기에 유일한 신인 등용문(신인 추천제)이었다. 그러므로 「문장」은 신인 및 동년배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그 신인 추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천작품모집

신인을 위해 이하의 규정으로 추천작품을 상시 모집함

시—정 지용선 1인 1회 3편이내

규정

- 당선작품은 추천작품으로 본지에 게재하고 기성작가와 동등한 교료를 추정함.
- 매월 마감날은 초 5일
-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로 추천을 세 번 얻는 작가에게 그 후 부터는 기성작가로서 우대함
- 무슨 원고는 반환치 아니함
- 원고는 정서할 것은 물론 철자법과 메어쓰는 것 모두 정확히 할 것
- 피봉에 「추천용모원고」라 쓸 것¹¹⁾

이상의 신인추천제가 1940년 9월부터는 신추천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 신추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지의 신인추천제가 좋은 새 시인과 작가를 얻는 것은 비단 문장의 성공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세 번씩이란 것과 그 선자가 고정해 있음이 신인에게의 기회가 좀 좁고 자유스럽게 넓게 고칩니다.

시, 시조, 소설, 모두 기성작가 한 분의 추천이면 됩니다. 간략한 추천문이 첨가돼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사숙하는 작가에게 보내서 문장에 추천을 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단의 모든 선배가 다 그 선자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규정에 의해 두 번까지 추천되었던 분은 전규약에 의한 약속을 이해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 번까지 추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¹²⁾

이러한 추천제에 있어서 시부문의 추천을 맡은 자가 정 지용이었다. 그는 이 시선을 맡고서 거의 매호마다 선후평을 썼으며 그에 대한 투고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민감했던 것 같다. 이 찔막한 선후평에서 당시에 시를 쓰고자 했던 많은 젊은이들은 의식 무의식간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11) 「문장」 창간호, 1939. 2. p. 101.

12) 「문장」 제 2권 7호, 1940. 9. p. 68.

정 지용을 통해 「문장」지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표 내용과 같다.

권	수	연	대	추	천	시	인	비	고
제 1 권	3집	1939.	4	조지훈	김종한	황	인		
제 1 권	4집	1939.	5	이한직	조정순	김	수돈		
제 1 권	5집	1939.	6	김종한	박두진	이	한직		
제 1 권	7집	1939.	8	김종환 (완)	이	한직 (완)			
제 1 권	8집	1939.	9	박목월	박	두진			
제 1 권	9집	1939.	10	김수돈	박	남수			
제 1 권	10집	1939.	11	박남수	신	진순			
제 1 권	11집	1939.	12	조지훈	박	목월			
제 2 권	1집	1940.	1	박두진 (완)	박	남수 (완)			
제 2 권	2집	1940.	2	조지훈 (완)					
제 2 권	7집	1940.	7	박목월 (완)					
								신추천제 실시	

정 지용을 통해 추천을 받은 신인들이 어느 정도로 지용을 닮아 있는가 하는 점은 당시의 신춘좌담회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문장의 추천제

이 태준, 최후로 문장의 추천제에 대해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 지용, 가장 공정하지, 뭐.

모 윤숙, 그만 두는게 좋아요, 선자를 바꾸든지.

임 화, 매달하지 말고, 일년에 한번이든지 두번이든지 소설, 시를 합해서 신인 특집호를 내면 어때요?

이 원조, 선자를 바꾸는게 좋지요. 경향이 다른 사람이 선택야지 그렇지 않으면 「에피고오네」만 만들어 내게 되지요.

모 윤숙, 꼭 그게 있어요.

정 지용, 나한테 가까운 놈한테 가장엄하게 했는데 모두들 저렇게 에피고오네이 탄탄 말야?

양 주동, 지용이 선을 하면서 지용다움지 않는 것을 선택야 정말 위대하지.

임 화, 선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투고하는 사람이 우선 문제지.

이 태준, 좋은 말씀들입니다. 추천을 매월하는 것은 그만치 신인들에게 기회가 갖기를 바라는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자가 자기를 닮은 사람만 뽑으리란 선입견은 너무 선자를 단순히 보는 건줄 압니다.¹³⁾

13) 신춘좌담회, 문학의 제문제, 「문장」 제 2권 1집, 1940. 1. p. 194.

당시의 문인들로부터 이러한 추천제도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당시 시단데뷔를 꿈꾸는 신인들에게 있어 지용시는 거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김 윤식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만일 문장과의 세계관이 한국문학의 중요 측면 중의 하나라는 명제가 성립된다면 소설에서 추천된 최 태웅, 임옥인, 허 민이라든가 시에서의 조 지훈, 박 남수, 박 목월, 박 두진, 이 한직 등이라든가, 시조에서의 이 호우, 조 남령, 김 삼옥 등 문장 출신들의 작품세계는 그들을 추천한 상허, 지용, 가람 등의 정신적 체질과 분리시켜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다.¹⁴⁾

이제 문장지를 통해 추천을 받은 3인에 대한 정 지용의 선후평과 3인의 발언을 통해서 영향관계의 가능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박 목월의 경우

박 목월은 1939년 9월(문장 1권 8집)에 「길처럼」 「그것은 연륜이다」의 두 작품을 통해서 초회 추천을 받게 되는데 그 추천에 대한 정 지용의 선후평은 다음과 같다.

등을 서로 대고 돌아 앉어 눈물없이 울고 싶은 리리스트를 처음 만나 뵈옵니다 그려, 어찌자고 이 험악한 세상에 애린촉촉한 리리시즘을 타고 나셨습니까! 모름지기 시인은 강해야 합니다. 조롱 안에서 또그리고 전될만한 그러한 사자처럼 약하야 하지요. 다음에는 내가 당신을 뭉뚱이로 후려잡기리라.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기 위하여, 얼마나 약한지를 추대하기 위하여.¹⁵⁾

이어 3개월 후인 1939년 12월에는 「산그늘」이 2회로 추천된다. 이 작품에 대한 선후평은 다음과 같다.

민요에 떠러지기 쉬운 시가 시의 자위에서 전락되지 않았읍니다. 근대시가 「노태하는 정신」을 상실치 아니하면 박군의 서정시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묘사적이고 색채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도 保留할 필

14) 김 윤식, 문장지의 세계관, 「한국근대문학 사상비판」, p. 162.

15) 정지용, 시선후평, 「문장」 1권 8호, 1939. 9. p. 128.

요가 있는 것이나, 박군의 서정시가 제련되기 전의 石金과 같아서 돌이 금보다 많았습니다. 王의 티와 미인의 이마에 사마귀 한날이야 버리기 아까운 점도 있겠으나 서정시에서 말 한 개 밍게 놓이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외다. 박군의 시 수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겨우 이 한편이 나카게 된 것이외다.¹⁶⁾

이상 선후평의 내용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초회 추천의 선후평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가 당신을 몽둥이로 후려갈기리라」는 그 엄격성이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음이다.

이제 마지막 추천 작품이었던 「가을 어스름」 「年輪」에 대한 선후평을 살펴보자.

북에 김 소월이 있었거니 남에 박 목월이가 날만하다. 소월의 툭툭 붙거리는 삭주 구성조는 지금 읽어도 좋더니, 목월이 못지 않아 아기자기 섬세한 맛이 좋다. 민요풍에서 시에 진전하기까지 목월의 고심이 더 크다. 소월이 천재적이요 독창적이었던 것이 신경감각묘사까지 미치기에는 너무도 민요에 종사하고 말았더니, 목월이 요적 대상 연습에서 시까지의 콤포지션에는 요가 머뭇거리고 있다. 요적 수사를 다 분히 정리하고 나면 목월의 시가 바로 조선시다.¹⁷⁾

초회와 2회와는 달리 목월시의 강점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과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천의 과정을 마친 목월의 당시의 입장을 환기시켜 봄으로써 그 영향관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으로써 추천이 완료되었지만 추천을 받는 동안의 긴장과 노력은 나로서는 무척 고된 시련이었다. 이것으로 나는 추천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선자는 다음과 같이 나의 작품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내렸다.

선자는 나를 소월에 비교하였다. 물론 그것이 엉뚱한 것으로만 여겨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나 자신은 요적 수사를 충분히 정리하고 나면 목월의 시가 바로 한국시라는 말에 집착하였던 것이다.¹⁸⁾

퇴고를 가한 작품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다만 퇴고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추천을 받을 때의 선자의 말이다. 옥에 티와 미인의 이마에 사마귀 하나야 버리기 아까운 점도 있겠으나, 서정시에서 말 한개 밍게 놓이는 것

16) 정지용, 시 선후평, 「문장」 제 1 권 11호, 1939. 12. p. 147.

17) 정지용, 시 선후평, 「문장」 제 2 권 7집, 1940. 9. p. 94.

18) 박목월, 내성적 사모, 「정록집」, 삼중당문고, pp. 113—114.

은 용서할 수 없다.¹⁹⁾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목월이 추천과정의 작품을 쓰고 있을 때, 정 지용의 선후평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었나 하는 점이다.

다음 조 지훈의 경우를 살펴보자.

(2) 조 지훈의 경우

조 지훈은 문장 1권 3집에서 3인 중 최초로 초회 추천을 받았다. 정 지용은 「고풍 의상」을 선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화비기도 좋기는 하였으나 너무도 양정스러워서 「고풍의상」을 취하였읍니다. 매우 유망하시외다. 그러나 당신이 미인화를 그리시라면 이당 김 운호 화백을 당하시겠읍니까? 당신에 시에서 앞으로 생활과 호흡과 연치와 생략이 보고 싶습니다.²⁰⁾

이어 두번째 추천은 1939년 12월에 작품 「승무」를 통해서다. 「승무」를 선하면서 정 지용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언어의 남용은 결국 시의 에스프리를 해소 시키고 마는 것이겠는데 언어의 건축 절제 여하로써 시인으로서 일가를 이루고 안 이룬 것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시작적 성장과정은 연치와 부단한 습작으로서 자연히 발전되는 것이요, 일조의 노성연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다채 다각 미묘 폭 절 이러한 것이야말로 청춘시인의 미질의 散火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춘조군은 시의 장식적인 일면에 함하여 얼마나 찬란한 타개를 감행한 것일지! 그러나 시의 미적근로는 구극에 생활과 정신에 경도할 것으로 압니다.²¹⁾

생활과 정신의 경도를 강조한 정 지용은 1940년 2월에야 「봉황수」「향문」 두 작품을 선한 후 조 지훈을 문단에 내보내게 된다.

작년 3월에 누구보다도 먼저 당선하여 금년 2월 이제 열한달 만에 피파스런 문장 추천제를 돌파하시는 구료, 미안스러워 친히 만나면 사과할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도의적인 것이나 예술적인 것이란 그것이 치열한 것이고 보면 불행한

19) Ibid., p. 138.

20) 정지용, 시 선후평, 「문장」 1권 3호, 1939, p. 132.

21) 정지용, 시 선후평, 「문장」 1권 11호, 1939, p. 147.

기간이나 환경이란 것이 애초에 있는 것이외다. 잘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선자의 못난 시어미 노릇으로 조급을 더욱 빛나게 하였는가 하면 어쩐지 선자도 한 몫 신이 납니다. 조금의 회고적 에스프리는 애초에 명소고적에서 해조한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고유한 푸른 하늘 바탕이나 고매한 자기살결에 무시로 거대한 一抹靈靄와 같이 자연과 인공의 극치일가 합니다. 가다가 명경지수에 세우와 같이 뿌리며 내려 앉은 비애에 아티스트 조 지훈은 한 마리 백토처럼 도사립니다. 시에서 것과 쪽지를 고를 줄 아는 것도 天成의 기품이 아닐 수 없으니 시단에 하나 신고전을 소개하며 바라보우.²²⁾

이러한 선후평을 들어 오면서, 조 지훈 자신은 어떻게 시작을 계속해 왔는가 하는 점을 본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해 보자.

나는 이「문장」지의 추천서 모집광고를 보고 「화비기」와 「고풍의상」을 투고 했던 바 당시의 선자 지용은 선후평에서 「화비기도 좋기는 하였으나 너무 양정스러워서 차라리 고풍의상을 택한다」 하고 언어의 생략과 시에 연치를 보이라는 충고를 주었다.

다음번 투고에는 「화비기」계열 곧 서구적 영향의 시를 몇 차례 보냈더니 낙선되었고 시적 범위가 참담하니 당분간 쉬라는 명이 붙어 있었다. 이로써 선자의 뜻이 같은 계열의 작품을 밀렸다는 눈치였음을 알았으나 당시 나에게서는 민족정서를 노래한 것으로는 「고풍의상」이 단 한편 있었을 뿐 그 계열의 작품이 더 없었기 때문에 반년여를 투고를 중지하고 있었다.

그 동안 새로 「승무」와 「봉황수」 및 「향문」을 써 보내어 소정의 판문을 통과했던 것이다. 승무에 대해서 선자는 언어의 다채다각과 미묘곡절로 시의 미적 수사를 위하여 찬란한 타개를 감행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여기서도 시어의 생략을 충고하였고 정신에의 경도를 권고하였다.²³⁾

선자의 선후평과 조 지훈 자신의 회고 내용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일단 추천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박 두진의 경우를 살펴보자.

(3) 박 두진의 경우

박 두진은 1939년 6월에 「향현」과 「묘지송」으로 초회 추천을 받게 된

22) 정지용, 시 선후평, 「문장」 2권 2호, 1940, p. 171.

23) 조지훈, 나의 시의 편력, 「청록집」, 삼중당, pp. 150—151.

다. 이 두 작품에 대한 선자의 선후평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시를 시우 소운한테 자랑삼아 보이었더니 소운이 경탄하는 중에 있던 산의 시를 포기하노라고 합니다. 시를 무서워할 줄 아는 시인을 다시 무서워 할 것입니다. 유유히 퍼고 얹은 당신의 시의 자세는 매우 편하여 보입니다.²⁴⁾

상당히 호평을 받은 박 두진은 1939년 9월에 「낙엽송」 작품으로 2회 추천을 받게 된다.

제 1회적 시는 완전히 조탁을 지난 것이었으나 이번 것은 그렇지 못하시외다. 당분간 담보료를 계속하시렵니까? 시상도 좀 낫은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高樓淸風에 유려한 변설 당신의 장점을 오래 고집하지 마시요. 이제도 선뜻 께이고 저래도 께이는 시적 재화가 easy going 으로 낙향하기 쉬운 일이니, 최종 코스를 위하여 맹렬히 저항 하시오.²⁵⁾

초회에 비해서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권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때문인지 3인 중 제일 먼저 추천과정을 마치게 된다. 작품 「의」와 「들국화」로 최종추천을 마감하고 정 지용은 선후평에서 박 두진의 시세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박군의 시적 체취는 무슨 산림에서 풍기는 식물성의 것입니다. 실상 바로 다옥한 산림이기도 하며 거기에는 김생이나 뱀이나 개미나 죽음이나 슬픔까지가 무슨 수취를 발산할 수 없이 백일에 서늘없고 푸근히 젖어 있습니다. 조류의 울음도 기괴한 외래어를 섞지 않고 인류와 친밀하여 자연어가 되고보니 끝까지 박군의 수림에는 폭풍이 아니와도 좋습니다. 항상 멀리 해조가 울듯이 좌—하는 극히 섬세한 송뢰를 가졌기에 시단에 하나 신 자연을 소개하여 선자는 만열이상이외다.²⁶⁾

이러한 선후평이 박 두진의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과정 속에 작용하였는가를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알아 보자.

「향현」과 「표지송」이 두 작품은 그 위의 계속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 한 발판과 표준수준이 되었던 만큼 작품 사상의 일관성을 보이기 위해서도 어떤 일

24) 정지용, 시 선후평, 「문장」 1권 5호, 1939, p. 127.

25) 정지용, 시 선후평, 「문장」 1권 8호, 1939, p. 128.

26) 정지용, 시 선후평, 「문장」 2권 1호, 1940, p. 195.

정한 구실을 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곧 그 이후의 모든 시작 생활과정을 통해서도 하나의 출발점과 방향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나 스스로가 의식하고 자각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시의 어떤 원형질이 이시들 속에 내포돼 있었으며 그 뒤의 모든 시 전개와 발전의 한 근원적인 요소의 의의를 지녔었다고 생각된다.²⁷⁾

이렇게 문장지를 통해 정 지용의 추천을 받은 세 시인은 그들의 발언 속에서 추천자의 영향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그 영향관계의 내적증거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4. 작품 내적 증거

(1) 시형식의 문제

시형식의 문제를 영향관계의 한 단서로 잡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시작품을 형식과 내용으로 분리해 생각해 왔으나, 이제 문학작품을 하나의 구조로 봄으로써 사실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 내용이 되는 정서나 사상은 형식과 융합되어 정식화 formulation 된 정서나 사상이 된다. 즉 제재로서의 어떤 정서나 사상은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결합되어 비로소 내용이 되는 것이다.²⁸⁾

특히 시에 있어서 형식의 문제는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넘겨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지용은 시형식에 있어서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즉 초기에 나타난 다양한 시형식의 실험은 후기에 와서 2행 1연시와 산문시로 정착된다. 전환기라 할 수 있는 「카토릭 청년」지에 시를 게재하는 시기부터 2행 1연 아니면 산문시 형식을 빌어 시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백록담」에 오면 더욱 확실한 시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27) 박두진, 「최녀작 대표작, 『정목집』, 삼중당, p. 172.

28) 김준오, 「시론」, 문장사, 1982, p. 219.

「백록담」에 실린 시를 이 형식의 갈래에 의해 도표화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No.	시	제	형	식	No.	시	제	형	식
1	장수산	1	산문시		15	나비	산문시		
2	장수산	2	산문시		16	진달래	산문시		
3	백록담		산문시		17	호랑나비	산문시		
4	비로봉	2행 1연시			18	예장	산문시		
5	구성동	2행 1연시			19	선취	2행 1연시		
6	옥류동	2행 1연시			20	유선애상	2행 1연시		
7	조찬	2행 1연시			21	춘설	2행 1연시		
8	비찬	2행 1연시			22	소곡	2행 1연시		
9	안동다	2행 1연시			23	파라솔	2행 1연시		
10	붉은손	자유형			24	별	2행 1연시		
11	꽃과 벗	〃			25	슬픈우상	산문시		
12	폭포	2행 1연시			그외	8편	산문		
13	온정	산문시							
14	삽사리	산문시							

도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산문시를 제외한 15편의 시에서 「붉은 손」, 「꽃과 벗」 두 편을 제외하면 모두가 2행 1연의 시이다. 이 두 편의 시도 4행이 1연을 이루나 2행 1연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렇게 보면 산문시가 아닌 시는 모두 2행 1연의 간결한 시형을 취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정지용의 두두러진 시형식이 청록집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3인의 시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산문시	2행 1연	기타	계
박목월	0	6	9	15
박두진	6	2	6	12
조지훈	1	9	4	12
계	7	17	15	39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용의 2행 1연의 시형은 목월과 지훈에게서 나타나고 산문시형은 두진의 시에서 그 영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자. 먼저 박 두진의 관계를 살핀다.

① 박 두진의 경우

①시상의 열거성 : 정 지용과 박 두진의 산문시에서 우선 눈에 확실히 드러나는 상사성은 시상의 전개에 있어서 열거성이다. 정 지용의 작품 백륙담 ⑦, ⑧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풍란이 풍기는 향기, 피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회파람새 회파람부는 소리, 물에 물이 따로 굴으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좌—좌— 출소리……

〈백륙담 7〉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 깃나물 대풀 石茸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고산식물을 색이며 취하며……

〈백륙담 8〉

이러한 시상전개의 열거성이 박 두진의 「향현」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뚝 솟은 산 묵중히 엮드린 산 골골이 장송 들어섰고, 머루다랗 넝쿨 바위 엉서리에 얼렸고 살불이 떠갈나무 옥새풀 우거진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농구리 등 실로 무수한 정승을 지니인……

〈향현〉

이러한 시형식에 있어서의 영향 가능성은 작품의 부분부분이기는 하지만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드러난다.

② 어투의 상사성 : 정 지용은 장수산 ①, ②에서 특이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박 두진의 향현에서 드러나고 있다.

벌목정정 이랫거니 아람도리 큰솔이 배혀짐죽도 하이 골이 울어 뺑아리 소리찌
르릉 돌아옴죽도 하이……

〈장수산 1〉

찬 하늘이 골마다 따로 써우었고 어름이 골이 얼어 드림돌이 딛옴죽 하이

〈장수산 2〉

산 산 산들 累巨萬年 너희들 침묵이 흙뻘 지리함죽 하매

〈향현〉

여기에 사용된 〈~즉 하이〉와 〈~즉 하매〉 사이의 거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바로 어투의 상사성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경우는 또 다른 몇 곳에서 지적할 수 있다.

백화 옆에서 백화가 족수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될 것이 승없지 않다.

〈백록담 3〉

백화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 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휩돌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백록담 1〉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별〉

먼데서 바다가 구길 때 쇠—쇠—솔소리

〈백록담 7〉

쇠아—한중일내—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온 바람소리……

〈별〉

시상전개의 열거성과 어투의 상사성 뿐만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촛점의 이동에 있어서도 같은 시작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㉔ 대상을 바라보는 촛점변화의 동일성 : 이러한 시점변화의 동일성을 정 지용의 「백록담 ①」과 박 두진의 「향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절정에 가까울수록 백극채 꽃키가 점점 소모된다. 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마루 우에서 목아지가 없고 나중에는 열꽃만 가운 내다본다 花紋처럼 版박한다.

〈백록담 1〉

아랫도리 다박술 잘린 산 넘어 큰 산 그 넘엇산 안보이어 내 마음 뚱뚱 구름을 타다.

〈향현〉

「백록담」에서는 시적 자아가 직접 산을 오름으로써 일정한 위치에 고

정되어 있는 대상의 모습이 부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이에 비해 「향현」에서는 시적 자아는 움직이지 않고 오직 시선만 근(近)에서 원(遠)으로 이동됨으로 대상이 희미해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시선이 이동하든 시적 자아가 직접 움직이든 대상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과정은 동일한 범주에서 논의가 가능한 기법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정 지용과 박 두진의 작품에서는 산문시에서 몇 가지의 영향관계 사항을 추출해 낼 수 있다.

② 박 목월과 조 지훈의 경우

정 지용의 간결한 2행 1연의 시형식은 박 목월과 조 지훈의 경우에 확실히 드러난다.

우선 정 지용이 2행 1연의 간결한 형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품을 살펴 보기로 한다.

꽃작에는 흔히
유성이 문힌다

황혼에
누워가 소란히 싸하기도 하고

꽃도
귀향 사는 곳

절터스 드랫는데
바람도 모이지 않고

산그림자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구성동〉

이 작품에서 1연은 유성, 2연은 누워, 3연은 꽃, 4연을 절터, 5연은 사슴이 주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전부 모여서 결국 산의 고요를 형상화 하고 있다. 즉 시의 각 연이 나타내는 이미지나 대상이 서로 다르다. 상이한 시연이 연결됨으로써 시전체가 비로소 전체성을 획득하고 있다.²⁹⁾

29) 이승원, 정지용 시연구, 현대문학연구, 제31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현대문학연구회, 1980, p. 43.

말하자면 시연과 시연 사이의 여백의 효과가 시 전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스토리의 개입, 산문적 서술성의 거부를 통해 순간적 지각의 세계, 이미지의 순간적 포착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2행 1연의 시형식은 이러한 시의 내용을 담는 적합한 그릇이 되고 있다.

박 목월의 경우 이러한 간절성을 「靑노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머언 산 청운사
 님은 기와집
 산은 자화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시원 피어가는 열두구비틀
 청노루
 님은 눈에
 도는
 구름

〈靑노루〉

이 시는 우선 상당한 간절성이 눈에 띄이며 이와 함께 여백미를 창조해내고 있다. 그런데 시의 연구분은 대상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연은 님은 기와집, 2연은 자화산, 3연은 느릅나무, 4연은 청노루, 5연은 구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부분부분들은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모여 봄의 정취라는 전체성을 새롭게 획득하고 있다.

이와 꼭 같은 입장에서 연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를 조 지훈의 「산방」이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달한 사람에게
 꽃잎이 떨리노니
 구름에 싸인 집이
 물소리도 스미노라

단비 맞고 난초잎은
새삼 치운데

별바른 미달이를
꿀벌이 스쳐간다

바위는 제자리에
움쩍 앉노니

푸른 이끼 입음이
자랑 스러라

아스럼 흔들리는
소소리 바람

고사리 새순이
도르르 말린다

<산방>

이 시는 자연이 용언으로 끝맺는 곳이 많기는 하지만, 연 구분은 대상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은 박 목월의 경우나 대동소이하다. 즉, 1연은 꽃잎, 2연은 물소리, 3연은 난초잎, 4연은 꿀벌, 5연은 바위, 6연은 이끼, 7연은 바람, 8연은 고사리 새순으로 자연이 모여 시의 전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와는 좀 다른 입장에서 연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를 정 지용의 「인동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주인의 腸腔에
무사로 인동 삼진물이 나린다.

차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풍설소리에 잠착 하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삼동이 하이얏다

〈인동다〉

이 시에 있어 연을 나누는 동인이 되는 것은 시인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의 변화이다.³⁰⁾ 노주인의 모습에서 자작 나무불→무순→흙, 풍설→삼동의 산중, 이렇게 시인의 시선이 읊아감에 따라 연이 바뀌게 되는데, 방안이라는 내부에서 외부로 부분에서 전체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작연은 그 자체내의 소재적 특이성을 지님과 동시에 시전체의 맥락을 연결 짓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부분의 조화로 전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앞서 제시한 「구성동」의 작품이 창출한 여백미를 생성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선에서 논의가 가능한 작품이 박 목월의 「3월」이다.

芳草峰 한나절

고운 암노루

아래스마을 골짜기에

홀로 와서

흐르는 내스물에

목울 추기고

흐르는 구름에

눈을 씻고

열두 고개 넘어가는

타는 아지랑이

〈삼월〉

이 시에 있어서 연을 나누는 동인은 시 속에서 주제로 등장한 노루가 움직이는 장소에 있다. 즉 암노루가 아랫마을 골짜기→냇물→흐르는 구름→열두 고개로 이동 혹은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

이래서 사슴은 골짜기에서 다시 고개로 넘어가는 공간적 확대가 이루어지

30) Ibid., p. 50.

고 있다. 이는 정 지용의 「인동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시선의 이동—방안에서 외부로의 확산—과 같은 양상의 것이다.

이렇게 2행 1언의 간결한 형식을 통하여 간결성과 여백미를 창조한 작품은 박 목월의 경우 「운 사원」, 「춘일」 등이 있고, 조 지훈의 경우 「낙화」 「피리의 불면」, 「고사」 등이 있다.

(2) 시어의 문제

시어는 시라는 유기체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제일 원초적인 질료이다. 그러므로 시어는 시라는 구조 혹은 유기적 통일성의 세계에 다른 부분들인 상상, 상징소리, 수사법 등과 긴밀하게 조화하면서 비로소 시어가 되는 것이다.³¹⁾ 그래서 시어가 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근원적인 것이다. 정 지용은 시는 무엇보다도 우선 언어를 재료로 하여 성립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언어에 대해 집착한 시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작품 속에서도 뚜렷이 드러나지만 그의 시론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바다.

색채가 회화의 소재라고 하면 언어는 시의 소재이상 거진 유일의 방법이랄 수밖에 없다. 언어를 떠나서 시는 제작되지 않는다. …… 시의 신비는 언어의 신비다. 시는 언어와 Incarnation적 일치다. 그러므로 시의 정서적 심도는 필연으로 언어의 정령을 잡지 않고서는 표현 제작에 오를 수 없다. 다만 시의 심도가 자연 인간 생활 사상에 뿌리를 깊이 서림을 따라서 다시 시에 긴밀히 혈육화 되지 않은 언어는 결국 시를 死産한다. 시신이 거하는 궁전이 언어요 이를 다시 방축하는 것도 언어다.³²⁾

이러한 언어관에 입각해서 시작을 해왔기에 김 기림도 정 지용을 일러

시는 무엇보다도 우선 언어를 재료로 하고 성립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시의 유일한 매개인 이 언어에 대하여 주의한 최초의 시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말의 각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와 감축과 光과 陰과 形과 音에 대하여 이처럼 정확한 식별을 가지고 구사하는 시인을 우리는 아직 아직 못한다. 그뿐 아

31)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79, p. 89.

32) 정지용, 시와 언어, 「문장」 1권 11호, pp. 130—131.

니라 단어와 단어의 독특한 결합에 의하여 언어의 향기를 비저내는 우수한 수완을 써는 가지고 있었다.³³⁾

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정 지용에게 있어서 언어는 시의 생명이며 언어의 조탁은 시인의 임무였다. 그래서 고어나 방언까지도 새로운 시어로서 매력과 생명을 부여했으며 감각어의 발굴은 지적할만한 결과를 남기고 있다.

우선 감각어를 살펴보면 색채 감각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³⁴⁾

색채 감각어	198
미각어	9
후각어	13
촉각어	11

이 색채감각어를 다시 세분화 해서 통계적으로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색 명	1 차색	2 차색	3 차색	총계
흰 색	43		21	64
빨 간 색	40		10	50
파 란 색	36		7	43
검 은 색	18			18
노 란 색	8	3	7	18
보 라 색		1	3	4
주 황 색		1		1
칠색무지개				1

이 분석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정 지용은 색채어 중에서 흰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이다.

33) 김기림, 1933년 시단의 회고, 「시론」, 백양당, 1947, p. 85.

34) 색채 감각어에 대한 부분은 양 왕용의 「정 지용 시의 시어와 이미지」를 참고한다.
양왕용, 「한국근대시연구」, 삼영사, 1982.

박 갑수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현대시의 평균 색채어 빈도는 청, 백, 적, 흑 순으로 나타나는데³⁵⁾ 지용은 이렇게 흰색에 경도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백록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거의 매시편마다. 흰빛의 사물이나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그래서 김 현은 그의 흰색에 대한 경사가 거의 병적일 정도이다³⁶⁾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흰색에 경도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흰색이 갖는 원형적 이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흰색이 갖는 원형적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양성적인 면에서는 밝음, 淸淨, 순진함, 그리고 영원성 등을 표상하고 음성적인 면에서는 죽음, 공포, 불가사의한 현상, 불가사의하고 광대하고 신비로운 숨은 진리 등을 표상한다.³⁷⁾

이러한 이미지 중 정 지용이 그의 작품에서 표백하고 있는 것은 감정의 과다한 노출을 억제하고 자신을 규제하려는 淸淨 혹은 결백의 표상이라 생각된다. 그의 작품 「춘설」, 「별」에서 이러한 상태의 지향을 역력히 읽어낼 수 있다.

어름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흰 웃고름 절로 헛기름도다

〈춘설〉

별을 잔치하는 밤

흰 옷과 흰 자리로 단속하리

〈별〉

이렇게 자연이나 의적 배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옷까지 흰옷으로 나타내어 때묻지 않은 순결한 상태의 표상을 보여준다. 또한 「파라솔」 같은 시에서는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혐오 엄격한 질서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구기여지는 것 젖는 것이

35) 박갑수, 「문체론의 이론과 실제」, 세운문화사, 1977, p. 174.

36) 김 현, 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p. 204.

37) Wilfred. Guerin, Earle G. Labor, Lee Morgan, John R. Willingham,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Harper & Row, p. 158.

아조 싫다

파라솔 같이 채록 접히기만 하는 것은
언제든지 파라솔 같이 펴기 위하여

〈파라솔〉

이러한 淸淨과 엄격성은 그의 시정신을 피력하고 있는 산문에서도 나타난다.

시도 타당한 것과 協和하기 전에는 말하자면 밝은 자리가 크게 옅은 곳이 아니
고 보면 시 될 수 없다. 一間직장도 가질 수 없는 시는 너무도 청빈하다. 다만 의
로운 길이 있어 荊棘의 꽃을 탐하여 걸을 뿐이다.³⁸⁾

이것은 시인의 정신자세를 말한 것으로 옅은 곳을 찾아 선 후에 시를
쓰는 자세와 시의 길을 청빈한 외로운 길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시론으
로 미루어 보아 지용의 시적 지향은 외로운 길 고요한 자리를 찾는 청빈
한 자세에서 찾아 질듯 하다. 그러한 자세가 시에서는 엄격한 질서감각,
깨끗지 못한 것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며 그러한 때문지 않은 순결한 세계
는 산을 통하여 흰색 이미지로 채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청록집에 사용된 색채어를 살펴 그 영향의 가능성을 찾아보자.³⁹⁾

색	명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제
흰	색	3	10	18	31
파	란 색	4	10	22	36
빨	간 색	4	3	6	13
검	은 색	2	1	2	5
노	란 색	1		4	5

청록집에 나타난 색채어 사용빈도수는 파란색, 흰색, 빨간색, 검은색,
노란색, 순서로 나타나 정 지용이 사용한 색채어 사용빈도수와 비슷한 순

38) 정지용, 시의 옹호, 「문장」 5권, 1939, p. 122.

39) 청록집에 나타난 색채어 관계는 신 진의 「청록집의 색채이미지 연구」를 참고 한다.

신진, 청록집의 색채 이미지 연구 「국어국문학 제 4집」, 동아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82.

서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흰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있다.

그리고 정 지용은 시어의 선택에 있어 남다른 세심함과 주의를 기울인 시인임을 앞서도 지적했지만 백록담에 있어서는 특히 의고적 어휘 고어 등을 많이 발굴하여 활용하였다.

「비로봉」시 속에 “백화수풀 앙당한 속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앙당한이란 앙당그러지다의 변형이다. 그 뜻은 마르거나 굳어져서 뒤틀린다는 말이다. 또 “산드랑게 얼어라”에서 산드랑게는 산드려지다의 변형이다. 그 뜻은 태도가 경쾌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원의미를 단절시키지 않으면서 시어를 변용시키고 있다.⁴⁰⁾

이외에도 허험스런, 훗하게, 함푼, 쌍그란, 애자지게 궁겨워, 간조롱, 해지오, 누워알 등 고어나 방언의 다채로운 활용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아시우다, 괴임죽도 하이, 서대든 것이나 등 의고적 종결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이 시기에 가람과의 교유가 깊어졌고 따라서 가람의 영향으로 한국 고전에 눈을 돌리게 되고 특히 한글 내간체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듯하다.⁴¹⁾

그래서 이러한 시어는 당연히 전아하고 고풍한 맛을 풍기기 마련이다. 산의 고답한 정취를 나타내기에는 이러한 시어가 알맞았을 것이다. 정 지용이 개척한 고전적 시어, 방언 등의 구사가 비록 기법적인 면에 국한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더라도 그가 이룩한 험란한 어휘구사의 높이는 청록집의 세 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면 청록집에 나타난 고전적 시어와 방언을 살펴보자. 먼저 박 목월의 경우를 살펴보면,

내사, 어느날에사(임), 골작(3월), 삼삼하고나(감사맹기), 아슴아슴(박꽃),
가시내(연꽃), 외무는 갓나베(산그늘)

40) 민병기, 정지용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0, p. 64.

41) 그의 산문문체와 내간체와의 관계는 김 윤식의 「한국근대문학 사상비판」 p.332에 언급되어 있다.

등이 보이며

조 지훈의 경우는

저허하노니(낙화) 허느니(울격), 스미노라, 아스럼(산방), 마조, 아츰, 어디에서(파초우) 나빌레라, 파르라니, 살포시(승무)

그리고 박 두진의 경우에는

다박술, 엉서리(황현), 갈사록(도봉), 즈생(별), 아츰(연륜), 눈포래(금), 일히, 쉬으고(푸른 하늘 아래), 푸슌, 아쿨아물(푸른 숲에서), 아츰에사(장미의 노래)

이와 같이 청록집에서도 의고적 어휘나 고어 방언 등을 통해서 시어를 개척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어의 측면에서 지용과의 영향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몇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정 지용의 작품이 청록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보았다. 문학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으로 양분해서 정리해 보았지만, 문학내적 측면에 있어서는 좀더 깊은 작품자체의 분석과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시세계의 측면에서도 맥이 통할 수 있는 체계화가 요청된다. 또한 정 지용의 영향권 내에서 시작을 출발한 청록파 세 시인이 가진 영향과는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개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 독자적인 요소가 파악되지 않으면 청록집의 시는 정 지용의 아류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를 달리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청록파 3인의 초기시의 지향점에 정지용시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즉 그들이 초기 시세계를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지용은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

은 단순한 아류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지용시가 청록파 3인의 시적 출발에 있어 공통된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의 확인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 | | |
|-----------------------------|--------------------------|-----------|
| 정 지용, 「정 지용 시집」 | 시문학사 | 1935 |
| 「백록담」 | 백양당 | 1941 |
| 「문학독본」 | 박문출판사 | 1948 |
| 「산문」 | 동지사 | 1949 |
| 「지용시선」 | 울유문화사 | 1946 |
| 박 목월의 「청록집」 | 울유문화사 | 1946 |
| 김 기림 「시론」 | 백양당 | 1947 |
| 김현, 김운식 「한국문학사」 | 민음사 | 1973 |
| 김 운식, 「한국 근대문예비평사연구」 | 한얼문고 | 1973 |
| 김 춘수, 「시론」 | 송원문화사 | 1975 |
| 박 목월의 「청록집기타」 | 삼중당 | 1975 |
| 송 욱, 「시학평전」 | 일조각 | 1970 |
| 오 탁번, 「지용시 연구」 | 고대대학원 | 1970 |
| 유 종호, 「비순수에의 선언」 | 신구문화사 | 1973 |
| 이 승원, 「정 지용시 연구」 | 서울대학원 | 1980 |
| 최 창록, 「지용시 스타일 연구」 | 국어국문학 | 1961 |
| 박 갑수, 「문체론의 이론과 실제」 | 세운문화사 | 1977 |
| 양 왕용, 「1930년대 한국시의 연구」 | 어문학 26 | 1972 |
| 문 덕수, 「한국모더니즘 시연구」 | 시문학사 | 1981 |
| 울리히바이슈타인, 이유영 역 「비교문학론」 | 홍성사 | 1981 |
| 김 준오, 「시론」 | 문장사 | 1982 |
| 문 장, 1권 1호~3권 4호, 문장사 | | 1939~1941 |
| 김 봉균, 「청록파의 ecologie 시비」 | 국어교육 21집 | |
| |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1973 |
| 신 진, 「청록집의 색채 이미지 연구」 | | |
| | 국어국문학 4집 동아대학교 문과대학 국문학과 | 1982 |
| 조 동민, 「한국적 모더니즘의 계보를 위한 연구」 | | |
| | 문호 제 4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1966 |
| 김 훈, 「한국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의 시와시론」 | | |
| | 서울대학교 대학원 | 1968 |

- 장 윤익,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1968
- 민 병기, 「정 지용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0
- 이 승훈, 「시론」 고려원 1979
- 김 용직, 「한국현대시 연구」 일지사 1974
- 박 용철, 「박 용철 전집」 시문학사 1940
- 정 한모, 「현대 시문학사」 일지사 1974
- 최 재서, 「최재서 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 Rene Wellec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70
- Wilfred, L. Guerin, Earle G. Labor, Lee Morgon
John R. Willingham,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Harper & Low 1966